

##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전통\*

김길성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 서론

오늘날 “개혁주의”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만도 약 12개의 개혁주의 교단과 또 다른 6개의 개혁주의 유산을 표방하는 교단들이 있다.<sup>1)</sup> 그러나 이 여러 교단들은 개혁주의라는 말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보다 극단적인 일례로, 미국 기독교 개혁교회(CRC) 내에서만도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열 가지 접근방법을 소개한 경우도 있다.<sup>2)</sup> 이러한 개혁주의 교단들의 특징들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는 것은 자칫 다양한 여러 요소들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주의에 대한 포괄적

\* 본 논문은 1998년 10월 30일 본교 개교 50주년·종교개혁 481주년 기념 제2회 국내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다.

- 1) 조지 말스든, “개혁주의와 미국,” 『웨스트민스트 신학과 화란 개혁주의』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2), 11.
- 2) I. John Hesselink, *On Being Reform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Common Misunderstanding* (Ann Arbor: Servant Books, 1983), 2: 113.

인 이해의 시도는 개혁주의 안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기 전에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체로, 개혁주의라는 말은 중세 로마 카톨릭의 경직되고 폐쇄된 성경이해와 해석에 대항하여, sola scriptura, sola gratia, sola fide를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인 루터, 쾰링거, 칼빈 등으로 대표되는 개신교(Protestant) 신학자들 중에서도 루터파와 구별되는 신학, 특히 요한 칼빈(1509-1564)과 그의 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신학을 일컫는 말로 오래동안 사용되어 왔다.<sup>3)</sup>

유럽에서는 주로 개혁주의라는 말이 통용된 반면에, 영미계통에서는 칼빈주의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는 서로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개혁주의라는 말이 더욱 많이 통용되고 있다.

개혁신학의 고전적 표현은 개혁주의 교회들의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불란서 신앙고백(1559), 스코틀랜드 신앙고백(1560), 벨직 신앙고백(156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6), 영국교회의 39개조(1562, 1571), 돌트 신조(1619),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1647) 등은 개혁신학의 고전적 진술에 속한다. 학자들로는 추리히의 울리히 쾰링거, 하인리히 불링거를 비롯하여, 스트라스부르크, 케임브리지의 말틴 부처, 제네바의 요한 칼빈과 테오도르 베자, 스트라스부르크, 옥스퍼드, 추리히에서 활동한 피터 베르미글리, 그리고 아만두스 폴란두스, 프란시스 투레틴(1623-1687) 등이 개혁신학의 거장들이다.

이후, 19세기 미국에서 활동한 찰스 하지, A. A. 하지 등이 있고, 미국의 B. B. 워필드, 화란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등은 19세기와 20세기를 이어 가는 개혁신학자들이었다. 20세기 개혁신학자들로는 미국에서 구프린스톤 신학의 마지막 주자 메이첸(1881-

---

3) Sinclair B. Ferguson & David F. Wright, *New Dictionary of Theolog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8), 569.



1937)을 위시하여 존 머리, 코넬리우스 반틸 등이 있고, 구프린스톤 신학전통을 물려 받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 한편, 화란에서는 개혁적 사고를 철학에 적용하여 포괄적인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인간관 수립을 위해 힘쓴 헤르만 도예베르트와 조직신학 분야에 일가를 이룬 베르카워 등이 있으나, 특히 베르카워의 경우, 그의 후기 신학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칼 바르트 신학에 대한 경도로 말미암아 화란의 자유대학 뿐만 아니라, 캄펜 신학교, 나아가서는 화란 개혁교회의 전체적인 신학 사상을 신정통 신학으로 물들게 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조지 말스든에 따르면, 미국에는 적어도 세 개의 중요한 “개혁주의”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sup>4)</sup> 이 지적은 니콜라스 볼터슈토프에 의해 이미 제시된 것으로, 니콜라스는 이 세 가지 타입의 개혁주의를 각각 교리주의자, 문화주의자, 경건주의자로 명명하였다.<sup>5)</sup> 그러나 미국 내에서 이 세 가지 개혁주의 전통은 각각 두드러진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개혁주의 교단들 사이에서, 또는 동일 교단 내에서도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연결되어 서로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개혁주의 전통 속에서 이상의 세 가지 형태는 각각 지배적인 하나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I. 미국 개혁주의의 세 가지 유형

### 1. 고백주의 전통

4) 조지 말스든, “개혁주의와 미국,” 15.

5) Nicholas Wolterstorff, “The AACs in the CRC,” *The Reformed Journal* 24 (December 1974): 9-16.

미국의 개혁주의 전통에서 첫 번째 두드러진 형태는 청교도 유산 속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백주의(Confessionalism)이다.

미합중국 장로교회의 거의 초창기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서와 대소요리문답의 위치는 논란의 초점이 되어 왔다.<sup>6)</sup> 미합중국 내에 프란시스 마케미(Francis Makemie)의 지도아래 첫 장로회 노회가 조직된 것이 1706년이었다.

그 노회는 흔히 독노회(the General Presbytery)라 불리워지며,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것을 기념하여 필라델피아노회(the Presbytery of Philadelphia)라 불리워진다. 1706년 이전에는 장로교인들이 주로 뉴잉글랜드 식민지, 중부식민지, 및 남부에 산재해 있었다. 신대륙에서 첫 장로교회를 형성한 이민자들은 영국 청교도들을 비롯하여, 웨일즈 장로교인들,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과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장로교인들, 불란서 위그노파, 기타 화란, 독일, 스위스 등에서 이주해 온 개혁파 교인들이었다.<sup>7)</sup>

대회가 조직된 것은 이로부터 10년후인 1716년의 일이었다. 신대륙에서 개최된 장로회 첫 대회는 흔히 the General Synod라 일컬어지며,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것을 기념하여 필라델피아대회(the Synod of Philadelphia)라 불리워진다. 첫 대회는 3개의 노회로 구성되었으며, 3개의 노회는 전체 19명의 목사와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메릴랜드에

---

6) 미합중국 장로교회 내 장로교 표준문서의 위치에 관하여, see George M. Marsden, *The Evangelical Mind and the New School Presbyterian Experienc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0), particularly 59-87; see also Lefferts A Loetscher, *The Broadening Church : A Study of Theological Issues in the Presbyterian Church Since 1869*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54), 1-8.

7) Gaius J. Slosser, de. *They Seek a Country*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55), 36; see also R. Webster, *A Histo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from Its Origin until the Year 1760* (Philadelphia : J. M. Wilson, 1857), 45.



이르기까지 3000여명의 수찬자를 대표했다.<sup>8)</sup>

1716년에 대회는 조직되었으나 교회의 표준문서는 1729년에 이르기까지 공적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대회 이후 10여 년에 걸쳐 교회의 교리적 표준문서를 둘러싸고 논쟁이 그치지 않았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교회들은 교회의 질서와 유지를 위해 오직 성경만이 충족한 표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스코틀랜드와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출신 목사들은 본국에서 하던 대로 교회의 교리적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로교 표준문서에 서약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sup>9)</sup>

결국 1729년 대회(the General Synod)에서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서와 대소요리문답이 새 교회의 표준문서로 채택되었다. 주로 존 톰슨(John Tompson)에 의해 작성된 채택안은 대회 내에 두 입장, 곧 엄격한 서약을 요구하는 견해와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적 입장을 채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견해를 둘 다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타협안이었다.<sup>10)</sup> 1729년의 “채택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 대회의 모든 목사 또는 이후로 본 대회에 가입하는 모든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서 및 대소요리문답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그 모든 조항에 있어서, 건전한 말의 바른 형태와 기독교 교리의 체계인 것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sup>11)</sup>

8) Slosser, *They Seek a Country*, 39.

9) Marsden, *Evangelical Mind and the New School*, 7.

10) William S. Barker, “Subscription to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and Catechisms,” *Presbyterian* 10(1984) : 1-19, especially 4; see also Barker, “The Hemphill Case, Benjamin Franklin and Subscription to the Westminster Confession,” *American Presbyterians* 69(1991) : 243-256, especially 245, 254; Leslie W. Sloat, “Jonathan Dickinson and the Problem of Synodical Authority,”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8(May 1946) : 149-165.

11) Maurice W. Armstrong, et. al, eds, *The Presbyterian Enterprise*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55), 31.

만약 어떤 목사나 후보생이 신도계요서의 어떤 조항에 대하여 어떤 “거리낌”이 있는 경우는, 그는 자기가 속한 교회에 자신의 교리적 취지를 선포할 것이요, 그의 불일치가 교회의 목회사역에서 그를 제거할 만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신앙의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노회 또는 대회 책임이었다.

1729년의 “채택안”은 신대륙에서 새로 출발하는 장로교회에 결정적인 교리적 기초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랫동안 관례가 되어 온 목사에 대한 시험대 역할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신도계요서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훗날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게 되었는데, 사실 신도계요서 제 20장, 제 23장과 관련하여, 교회문제에 대한 국가적 위정자의 권세를 만장일치로 거절한 것 외에는, 교리나 예배나 정치에 있어서 이들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736년에, 교회가 신도계요서에 어느 정도까지 충실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회는 국가적 위정자에 관한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동시에 “거의 아무런 변화나 변경없이” 신도계요서의 “예부터 수납된 바른 교리들”에 대회가 충실해야 한다고 선언했다.<sup>12)</sup> 대회 안에 두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조나단 디킨슨은 교회 안에서 영국 청교도 요소를 대표하고, 존 톰슨은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요소를 대표했다. 교회 안에 신도계요서에 대한 보다 느슨한 입장을 취한 디킨슨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그의 율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그의 마음과 뜻을 연구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전 경륜을 선포하도록 그 적용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게 한다. 그러나 무오를 주장할 수 없는 이것은, 그 해석을 부과할 아무런

---

12) George P. Hutchinson, *The History Behind 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Evangelical Synod* (Cherry Hill : Mack Publishing Co., 1974), 116.

168 / 신학지평 제8집 · 1998 여름 · 가을

권위도 가질 수 없다. 또한 그 해석이 자기에겐 올바르고 참이라고 하는 것 외에, 어떤 사람도 절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없다.<sup>13)</sup>

반면에, 신도계요서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 대회의 책임과 관련하여 톰슨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자, 신앙고백이 없는 교회는 무엇과 같을까?……

나는 우리가 매우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대회의 결의에 의해 우리의 것이 된 신도계요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우리 중 누군가가 그 신도계요서에 서약하지 않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리적인 것에 부패한 자들을 목회에서 제거하는데 사용될 제도적 장치가 없게 된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부패와 교리를 포기하지 않은 채 목회에 영입될지도 모른다. ....

알미니안주의, 소씨니안주의, 자연신론, 자유사교 등이 기성교회나 분리한 교회를 막론하고 개혁파 교회 위에 이 정도로 홍수처럼 범람하는 때, 우리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유를 갖지 못한다는 말인가?<sup>14)</sup>

디킨슨과 톰슨은 미합중국 장로교회의 초기역사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경향 곧 비서약론자와 엄격한 서약론자의 입장을 각각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새 교회가 1729년을 계기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교회의 공식적 신앙고백으로 승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목사 또는 목사 후보생이

13) Ibid., 27.

14) Charles Hodge,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Church of America* (Philadelphia :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51), Part, 137.

신도계요서에 서약하는 일과 관련하여, 그 서약의 의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몇 가지 견해가 있었다. 그 서약이 의미하는 바가 신도계요서에 있는 문자까지의 수용 또는 적어도 신도계요서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의 수용을 함의하는 “엄격한 서약”을 뜻하는가, 아니면 그 중요한 교리에만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느슨한 서약”(loose subscription)을 뜻하는가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가지지 못했다.

이 논쟁에 대한 해결책이 1729년의 “채택안”(the Adopting Act)이었는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의 채택을 건의한 1727년의 헌의안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729년의 채택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문제로 대회는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이러했다.

1729년 9월 19일 오전에 대회는 “예비안”(the Preliminary Act)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대회의 회원 각인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모든 조항”에 서약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대회는 다시 대회의 몇몇 회원들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거리낌”(scruples)을 선포했다. 그 내용인즉, 본래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서 제 20장과 23장에 있는 구절들로, 국가적 위정자들이 대회에 권위를 행사하는 일과 교회 권징을 행사하는 권위를 가진다고 하는 구절들이 유일한 “거리낌”(scruples)으로 선포되어졌다.<sup>15)</sup>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건너온 이민자들이 과거 본국의 왕정 아래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아온 것을 이해한다면 이날의 결정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한 날짜에 채택된 두 가지 안에 대하여 후대의 학자들은 서로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

15) *Minut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1706-1788*, ed. by Guy S. Klett (Philadelphia :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1976), 103-4, 108, 141-42; see also Maurice W. Armstrong, Lefferts A. Loetscher, and Charles A. Anderson, eds., *The Presbyterian Enterprise*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55), 30-32.



어떤 학자들은, 이날 통과한 채택안(the Adopting Act)이 신도계요서 서약을 반대하는 파에 유리한 타협안이었다고 간주했다. 그 이유는 그 채택안이 목사들에게 신도계요서에 일치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sup>16)</sup>

또 다른 학자들은, 1730년과 1736년의 대회결의에 비추어서 1729년의 채택안이 교회 내에서 신도계요서에 대한 엄격한 서약을 바라는 파에 대한 승리였다고 주장했다.<sup>17)</sup>

그러나 위의 두 가지 견해가 1729년의 채택안(the Adopting Act)의 의의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두 견해중에 전자는 같은 날 오전에 채택한 “예비안”에 강조를 두고 있으며, 반면에 후자는 같은 날 오후에 채택한 “동의안”에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729년 9월 19일 오전과 오후에, 대회에 의해 채택된 두 가지 안(two acts)이 그 대회의 “채택안”(the Adopting Act)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윌리엄 바아커(William S. Barker)교수에 따르면, 1729년 9월 19일 오후에 결의된 실제적 “동의안”은 “완결안”(the concluding act)으로, 그리고 그날 오전에 이미 채택된 “예비안”은 “즉각적인 역사적 맥락의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8)</sup>

16) 이 주장의 대표적인 예로, see Charles Augustus Briggs, *American Presbyterianism*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885), 208-21; see also Briggs,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Presbyterian Review* 10(July 1889) : 464-474; Briggs, "Revision to the Westminster Confession," *Andover Review* 13(1890) : 45-68.

17) George W. Knight, "Subscription to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and Catechisms," *Presbyterian* 10 (1984) : 20-55; see also Knight, "A Response to Dr. William Barker's Article 'Subscription to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and Catechisms,'" *Presbyterian* 10 (1984) : 56-63.

18) Barker, "Subscription to the Westminster Confession," 4; see also Barker, "Hemphill Case," 243-56

윌리엄 바아커 교수에 따르면, 1729년 9월 19일 하루 동안에 결의된 두 가지 안(two acts)은 일견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전안은 “예비안”으로, 오후안은 “완결안”으로 이해하고, 이 두 안이 전체의 두 부분을 이루어 그날 대회의 “채택안”(the Adopting Act)이라고 하는 점이다.

윌리엄 바아커 교수의 이러한 입장은 훗날 1920년대와 1930년대 미합중국 장로교회 안에 야기되었던 근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Modernist vs Fundamentalist controversy)에서 특히 교회내 목사 또는 목사후보생들의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에 대한 서약논쟁을 이해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당시 자유주의자들 또는 근대주의자들과 또한 이들이 교회 내에 함께 있어도 좋다고 하는 소위 온건파 또는 포용주의자들(Inclusivists)은, 교회의 표준문서들에 대한 서약을 우습게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결정에 대해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사태로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미합중국 장로교회 내 자유주의자들은 1924년 1월 9일 소위 오번 선언서(the Auburn Affirmation; 원이름은 An Affirmation Designed to Safeguard the Unity and Liber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미합중국 장로교회의 일치와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의도된 선언서)를 발간하고 교회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이 선언서가 처음 발간될 때는 141명의 장로교 목사들이 서명하였으나, 동년 5월 2차 발간 때는 거의 1,300명의 장로교 목사들이 서명했다.<sup>19)</sup>

---

19) 오번선언서의 원본에 대해 see “An Affirmation,” Published on January 9, 1924, Machen Archives, the Montgomery Library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iladelphia; see also *The Presbyterian* (January 17, 1924), 6-7; Edwin H. Rian, *The Presbyterian Conflict*, 91-97; Charles Quirk, “The ‘Auburn’ Affirmation : A Critical Narrative of the Document

조지 말스든 교수는 미합중국 장로교회사에 있어서 1925년을 중요한 분수령으로 간주했다. 19세기말 미합중국 장로교회 안에 있었던 종교재판, 그리고 1903년의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 개정(워필드는 끝까지 개정을 반대했다)에 이어, 이에 당황한 보수세력에 의해 주도된 1910년 근본주의 5개조 채택과 1916년과 1923년에 2번에 걸친 교회의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순간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내에 있는 자유주의자들과 이들에게 동조하는 소위 포용주의자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1924년에도 1925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결국 교단내에서 집단적으로, 기독교의 근본교리들에 대해 도전하는 무리들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 버리고만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배경으로하여, 말스든 교수는 1925년을 분수령으로 미합중국 장로교회내에서 근본주의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이 급속히 쇠퇴하고 자유주의자와 그 배후세력이 급속히 득세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sup>30)</sup>

교회내 자유주의자들의 공존을 선언하고 종교다원주의의 포용을 주장한 자들에 대하여 교회가 이를 바르게 권징하지 못한데 대하여 미합중국 장로교회는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미합중국 장로교회내 근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이 주는 교훈은, 장로교 표준문서들에 대한 서약논쟁과 관련하여 1729년 9월 19일 오전에 채택된 “예비안”과 같은 날 오후에 결의된 “동의안”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필요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먼저 1729년 9월 19일 오전에 채택된 “예비

---

Designed to Safeguard the Unity and Liber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Iowa, 1967), 338-400.

20) George M. Marsden,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The Shaping of Twentieth-Century Evangelicalism: 1890-1925*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183.

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1)</sup>

우리는…본 대회와 모든 목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서와 대소요리문답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그 모든 조항에 있어서, 건전한 말의 바른 형태와 기독교 교리의 체계인 것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을 선포할 것을 동의한다. 또한 동 신도계요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하는 바이다.

…모든 노회들은…동 신도계요서의 본질적이고 필요한 모든 조항과 의견의 일치를 선언하지 않고서는 어떤 목사후보생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할 것이다.…어떤 목사…또는 목사후보생이 동 신도계요서나 대소요리문답의 어떤 조항 또는 조항들과 관련하여 어떤 거리낌이 있는 경우에 그가 상기 선언을 할 때 노회나 대회에 자기의 취지를 선언할 것이며, 대회나 노회가 그의 거리낌이나 실수가 교리, 예배, 정치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적이 아닌 조항에 관한 것 뿐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노회나 대회가 그를 목회사역에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사나 후보생이 신앙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고 대회나 노회가 판단한다면, 대회나 노회는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고 그들에게 선언할 것이다. 또한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비본질적이고 필수적이 아닌 교리 조항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또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대회는 엄숙히 동의하는 바이다.

같은 날 오후에 결의된 “동의안”은 다음과 같다.<sup>22)</sup>

---

21) Quoted from the Synod Minutes in Armstrong, *Presbyterian Enterprise*, 31-32.

22) *Ibid.*, 32.



현재 출석한 본 대회 of 모든 목사들은,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선언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곧[이하 18명의 명단],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서와 대소요리문답 속에 어떤 조항이나 표현에 상치하는 거리낌의 전부를 제출한 후, 이 거리낌의 해결에, 또한 동 신도계요서와 대소요리문답이 자기들의 신앙고백인 것으로 선언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오직 제20장과 제23장에 있는 몇 구절들은 제외된다. 이 구절들은 목회적 권위의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 위정자가 대회 위에 감독권 또는 이들의 종교에 대해 누군가를 박해할 권세를 가진다고 한다거나 또는 대영제국의 왕좌에 대한 개신교 승계에 반대하는 어떤 의미에서도 이 조항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대회는 만장일치로 선언하는 바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서와 대소요리 문답은 국가적 위정자와 관련된 오직 한 가지 제한을 두고는 채택되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서나 대소요리문답의 내용 중 “거리낌”(scruples)에 대해, 한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으니, 곧 예외조항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목사나 목사후보생이 자기의 예외조항을 표명하고 또한 노회나 대회가 이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실지로 당시 출석한 19명의 목사들중 18명이 신도계요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자신들의 신앙고백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윌리엄 바아커 교수는 1729년의 “채택안”(the Adopting Act)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채택안은 존 톰슨과 같은 엄격한 서약론자들과 조나단 디킨슨 같은 넓은 복음주의자들 쌍방을 만족하게한 일종의 타협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가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교리적 표준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있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다루는 방법을 제공하였기 때문이

다.<sup>23)</sup>

우리는 윌리엄 바아커 교수가 지적한 대로 1729년 채택안이 엄격한 서약론자들과 비서약론자들 쌍방을 만족하게 하는 일종의 타협안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결론은 1729년 채택안이 목사들에게 신도게요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신도게요서 서약에 반대하는 쪽에 유리한 타협안이었다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다.<sup>24)</sup>

1729년 채택안에 따르면, 미식민지 장로교회(미합중국 장로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목사나 목사후보생은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밖에 아직 불명확하게 남아 있는 것은, 오직 신도게요서 제20장과 제23장에 있는 국가적 위정자와 관련한 구절에 대해서 만큼은 “거리낌”을 표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밖에 무슨 교리상의 “거리낌”을 가지고 있다고 표명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리낌은 수용할만하다고 하는 여부를 자기가 속한 노회나 대회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일이다. 존 톰슨이 제출하여 결국 1729년 채택안으로 채택된, 1727년 헌의안에서도 동일한 생각이 이미 발견된다.

다섯째, 우리 지역내 어떤 목사가 동조항들 중 어느 것에 반대되는 어떤 것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경우에, 먼저 논의를 위해 노회나 대

---

23) Barker, “Subscription to the Westminster Confession,” 5; see also Charles Hodge,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51), I, 152; John Murray, “Creed Subscription 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Unpublished paper,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Library, 1979), 4.

24) 이 점에 대하여, see Charles Hodge, *Constitutional History*, 62-215

회에 상기 요점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이리이러하게 책벌을 받게 될 것이다.<sup>25)</sup>

어떤 거리낌을 표명하는데 대한 이러한 절차는 신도계요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필요로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목사나 목사후보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다른 점에 대하여 “공개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엄격한 서약론자들과 비서약론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즐길 수 있게 되며, 또한 만약 필요하다면, 훗날 험필과 같은 자연신론자를 권징하는데 함께 협력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sup>26)</sup>

1729년 채택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신도계요서 서약에 관한 찰스 하지의 입장과 비교해 볼 때 더 확실시될 것이다.

찰스 하지는 1831년에 발간된 “콕스 박사의 서신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신도계요서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체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채택하는 것을 고백함에 있어서, 사람은 모든 다른 것에 반대하여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로 연속된 교리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즉, 그는 소시니안, 펠라기안, 준펠라기안, 알미니안, 또는 기독교에 반대되거나 조화되지 않는 어떤 견해에도 반대하여, 칼빈주의 체계를 이룩하고 있는 전체로 연속된 교리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다.<sup>27)</sup>

25) Quoted in Hodge, *Constitutional History*, I, 141.

26) 험필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Barker, “Hemphill Case,” 254를 참조하라.

27) Charles Hodge, “Remarks on Dr. Co’s Communication,” *Biblical Repertory and Theological Review* 3(1831) : 522. 워필드도 서약에 관해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See Warfield, “Presbyterian Churches and the Westminster Confession,” 656-57; also Warfield, “Final Report of the Committee on Revision,” 330; Warfield, “Proposed Union,” 298, 315.

하지는 또한 “교리의 본질적인 것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어떤 견해라도 허용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 경우, 판단의 권리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의 면전에서 각 개인의 판단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두 번째로,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노회가 판단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sup>28)</sup>

하지는 1858년 초판이 발행된 “교회와 그 조직”에서, 그가 1831년에 가지고 있던 동일한 견해를 주장했다. 하지는 이 책에서 “교리의 실체” 견해에도, “모든 자구” 견해에도 모두 반대하고, 1729년 채택안에 있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이라고 하는 말이 교리체계(the system of doctrine)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sup>29)</sup> 이 경우에 표준문서들에 대한 목사나 목사후보생의 “거리낌”(scruple)이 교리체계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리를 노회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신도계요서가 허용하고 있는 이혼의 합법적 근거가 되는가 하는 문제, 또는 신도계요서가 허용하고 있는 바, 사람이 죽은 아내의 여동생과 결혼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하지는 교리체계에 대한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sup>30)</sup>

위에서 보듯이, 하지의 견해가 초기의 보다 엄격한 입장에서 후기의 보다 느슨한 입장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하여 일치된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의 일관된 입장은 존 그레슈햄 메이첸(J. Gresham Machen) 박사의 스승이었던 벤자민 워필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워필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또한 가장 물어볼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각

---

28) Hodge, “Remarks on Dr. Co.’s Communication,” 523.

29) Hodge, *Church and Its Polity* (London : T. Nelson, 1879), 329

30) *Ibid.*, 331.



사람이 그것[신도개요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자신이 믿는 진리체계의 표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sup>31)</sup>

또한 다음 글에서도 워필드가 “자유로운” 법칙(a liberal formula)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워필드가 말하는 자유로운 법칙은 “느슨한” 법칙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재판은 자유롭지 못한 법칙에는 할 수 없는 때에도 자유로운 법칙에 따라 사람을 엄격하게 붙들어 놓을 수도 있고 또 감히 시도하기도 한다.

워필드가 위의 글에서 관심을 둔 것은 교회 일각에서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서약형식에 있어서 오히려 “과도한 엄격함”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느슨한” 서약을 전혀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위의 인용에서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워필드가 자유로운 법칙에 호소함으로써, 그것이 “느슨한 법칙” 또는 “어떤 법칙의 느슨한 관리-그 안에는 본질적인 부정직함이 잠재해 있다-에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sup>32)</sup>

이상에서 보듯이, 찰스 하지나 워필드 어느 쪽도 “엄격한” 서약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오히려 두 사람 모두, 교회 직분자 편에서 장로교회 표준문서들에 대한 “정직하고 신실한” 서약을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것은 이들 두 사람 모두, 엄격한 서약론자들의 견해나 비서약론자들의 견해, 또는 느슨한 서약론자들의 견해 중 어느 쪽도 지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

---

31) Warfield, “Presbyterian Churches and the Westminster Confession,” *Presbyterian Review* 10 (October 1889), 646-657.

32) *Ibid.*, 650.

하지만 워필드 그리고 근대주의대 근본주의 논쟁에서 메이천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전체로서 개혁주의 교리체계에 대한 정직하고 신실한 서약(honest and faithful subscription)을 요구하고 있다.<sup>33)</sup>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신도계요서의 어떤 조항에 대해 “거리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는 노회 앞에 자기의 교리적 입장을 표명할 것이요, 그리고 이들 “거리낌”이 신도계요서에 담긴 개혁주의 교리체계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그 노회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미합중국장로교회의 표준문서에 서약하는 것이 곧 개혁주의 교리체계에 서약하는 것으로 의미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메이천의 경우,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서와 대소요리문답을 교회의 공적고백이요 바로 자신의 고백임을 이미 안수시에 서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시나 교수시 신도계요서의 교훈을 무시하는 처사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sup>34)</sup>

## 2 문화변혁주의 전통

미국의 개혁주의 전통에서 두 번째 두드러진 형태는 문화변혁(transformation of the culture)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 속에서 발견되는 기독교와 문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변혁에 대한 관심은 교단적으로 화란에서 이민온 사

---

33) J. Gresham Mache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in *What Is Christianity? and Other Addresses*, ed. by Ned B. Stonehous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1), 229; see also Machen, *God Transcendent and Other Sermons*, ed. by Ned B. Stonehous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49), 142.

34) Machen, *What Is Faith?* (1925; rp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46), 103; see also Machen, *The Christian View of Ma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37), 131.

람들과 그 후손들로 대부분 구성된 기독교 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CRC)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화란 본국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의 가르침에 따라, 인생의 전 분야에서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도록 활동하기를 원한다. 이들은 또한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 외에 모든 직업을 소명으로 볼뿐만 아니라, 특히 개혁주의 세계관, 개혁주의 인간관, 개혁주의 삶의 원리들을 가르치는 독자적인 기독교 학교들을 설립하고 이를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중에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칼빈 대학(Calvin College)과 칼빈 신학교(Calvin Theological Seminary)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의 개혁주의 전통에서 문화변혁을 특히 강조하는 형태는 칼빈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봉직했던 루이스 벌콕(Louis Berkhof)의 신학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루이스 벌콕은 칼빈 신학교에서 38년 동안 봉직하는 동안 조직신학 분야뿐만 아니라, 성경신학과 사회윤리 분야에서도 훌륭한 저서들을 남겼다.<sup>35)</sup> 그는 20세기초 미국의 주류교단 안에 심각하게 자리한 근본주의 대 근대주의 논쟁에서, 성경의 기본 교리 면에 있어서 역사적 개혁주의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들에게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당시 미국이 당면했던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미국에서 인기를 누렸던 사회복음주의적 대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신학적 해답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sup>36)</sup> 20세기초 근본주의 대 근대주의 논쟁의 와중에서 미합중국

---

35) 루이스 벌콕의 성경신학 분야의 저서로는: Louis Berkhof, *Principle of Biblical Interpretation* (1937); *Life under the Law in a Pure Theocracy* (1914); *Biblical Archaeology* (1915);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1915) 등이 있고, 사회윤리 분야 저서로는: *Christianity and Life* (1912); *The Church and Social Problem* (1913) 등이 있다.

36) Louis Berkhof, *The Church and Social Problems* (Grand Rapids: Eerdmans, 1913), 3-4, 9-20.

장로교회(PCUSA)가 논쟁의 한 복판에 서 있었을 때, 별콕은 자기가 속한 기독교 개혁교회(CRC)의 신학교에서 이 논쟁을 비교적 제 삼자의 입장에서 관망할 수가 있었다.<sup>37)</sup>

한편,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메이천이 자기가 속한 미합중국 장로교회(PCUSA)에서 자유주의자들과 더불어 더 굳분투할 때, 마침내 프린스턴 신학교의 스티븐슨 학장의 주도로 이사진의 개편과 더불어 학교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여, 이에 대항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자, 기독교 개혁교회의 코넬리우스 반틸, R. B. 카이퍼 등은 직접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로 초빙되었고, 기독교 개혁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초기부터 신학교 경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한 것만 보아도 두 신학교 사이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별콕은 당시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미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회복음주의적 대안에 대하여는 비성경적인 것으로 반대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만을 보이는데 대하여도 입장을 달리하였다. 당시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범교단적인 근본주의 운동에 동조하면서도, 당시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이 당면하고 있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책임져야 할 역할에 대하여 역사적인 조명을 시도하고, 교회의 사회적 무관심에 대한 부분적인 실수를 인정하고 개인구원과 타계적 복음전파 이상의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촉구하였다.<sup>38)</sup>

---

37) 자기 교단 내에 있었던 별콕과 Butema, Janssen 사이의 논쟁에 대하여, J. H. Kromminga,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A Study in Orthodox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49), 72-79. 또한 화란 본국과 기독교 개혁교회(CRC) 안에 일어난 일반은총 교리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Cornelius Van Til, *Common Grace*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4), 16-18; 23-24.

38) *Ibid.*, 16-20.



이 점에 있어서, 1936년 이후 근본주의자들이 자의이든 타의이든 자신들이 속한 주류교단을 떠나 신근본주의 운동으로 이어 나아갔을 때, 이들이 미국교회의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고 반지성적, 반문화적 운동으로 전락하고만 것과는 그 맥을 달리하고 있다.

벌콕에게 교회는 성도들의 교통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의 조직체로서 사회개혁에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복음 속에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적 교훈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에게 교회는 구원의 복음전파를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사역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사는 그의 설교에서 단순히 구원의 복음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 위에서 그가 속한 사회의 개혁을 위하여 책임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입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활동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사회단체를 조직하여 사회개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특히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적 입장을 따라 개혁주의 관점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신칼빈주의(Neo-Calvinism) 입장을 제창하였다. 신칼빈주의를 주장한 화란 본국의 아브라함 카이퍼나 미국에서의 벌콕의 입장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겠으나,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 역사적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보수 신학자들이나 보수 교단들이 보다 계발해야할 분야임에 틀림이 없다.

칼빈 신학교에서 교수한 벌콕의 문화변혁에 대한 관심은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교수한 메이천, 코넬리우스 반틸, R. B. 카이퍼 등으로 이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대부분의 교수들의 입장과도 연결되며,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성경장로교회 소속의 페이스 신학교를 수학한 메이천의 제자인 프랜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3. 복음주의 전통

미국의 개혁주의 전통에서 세 번째 두드러진 형태는 미국의 복음주의(Evangelicalism) 전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의 줄기에서, 분리의 교리(Doctrine of Separation)를 전면에 내세운 신근본주의와는 다른 덜 분리주의적인 이들은 처음에는 “신복음주의”(Neo-Evangelicalism)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다. 칼 헨리, 풀러 신학교의 해럴드 오켄가 박사 등이 주도적인 인물이었으며, 이들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었다.

칼 헨리, 오켄가 등이 주도한 당시 미국의 전국복음주의 협의회(N.A.E.)를 통한 복음주의자들의 활동은 차츰 자유주의자들과의 신학적 대화, 현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복음주의적 비평, 복음주의적 협동을 위한 깊은 계획 등을 촉구함으로써, 이 운동의 지도자였던 해럴드 오켄가 만큼이나 변화를 겪었으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실상 “신복음주의 운동”의 요람이 되었고, 결국 이들이 비판해 마지않던 세계교회 협의회(W.C.C.)와 친선관계를 추구하게 되었다.<sup>39)</sup> 또한, 해럴드 오켄가가 초대학장을 지낸 풀러 신학교(1947년 설립)는, 초기에는 칼 헨리(Carl Henry), 에브렛 해리슨(Everett Harrison), 글리슨 아처(Gleason Archer) 등 훌륭한 복음주의 학자들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에드워드 카넬(Edward J. Carnell)의 유신진화론의 수용과, 1970년 성경관의 변질로 말미암아 풀러 신학교는 초기와는 다른 “신복음주의 신학”으로 기울고 말았다. 그러나 풀러 신학교의 신학적 좌경 후에도, 풀러 신학교의 세계선교 대학원은 복음주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sup>40)</sup>

복음주의자들은 풀러 신학교의 좌경 후에도, 휘튼 대학, 트리니티

39) 김의환, 「현대신학해설」(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9), 182.

40) Ibid.: cf. 김성태,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현주소,” 「신학지남」통권 245호 (1995년 겨울호):45-47.

복음주의 신학교, 고든-콘웰 신학교를 중심으로 학문적 교류를 계속하였고, 1956년에 창간된 「오늘의 기독교」(*Christianity Today*)라는 잡지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빌리 그레함의 전도집회, 칼 헨리, 프랜시스 쉐퍼 등의 강연, 국제 기독교 학생회(IVF) 등을 통하여 이들의 활동과 저술이 전 세계에 널리 읽히게 되었다.

그러나 복음주의 운동에 있어서 개혁주의는 결코 유일한 신학사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종말론에 있어서도 다양한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복음주의자들의 지배적인 신학적 전통은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들 복음주의자들은 전도와 부흥운동, 또한 개인의 경건성을 강조하는 폭넓은 미국의 복음주의 전통 속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기도 하다.

## II.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들

이제 우리는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전통 속에 활동해 왔거나 활동하고 있는 몇 명의 신학자들을 통해 이들의 신학을 간결하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린스턴 신학교의 설립부터 신학교 이사회의 재편성으로 말미암아 동 신학교가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를 수용한 때까지 1812년부터 1929년까지의 구프린스턴 신학(Old Princeton Theology) 전통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구프린스턴 신학전통의 신학자들로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첫 교수였던 아치볼드 알렉산더(Archibald Alexander, 1772-1851)를 포함하여, 찰스 하지(Charles Hodge, 1797-1878), 아치볼드 알렉산더 하지(Archibald Alexander Hodge, 1823-1886), 벤자민 워필드(Benjamin B.

Warfield, 1851-1921), 그리고 구프린스톤 신학전통의 마지막 주자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한 잔 그레스햄 메이천(J. Gresham Machen, 1881-1937) 등이 있고,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코넬리우스 반틸(Cornelius Van Til) 등 여러 학자들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좋겠으나, 지면관계상 필자가 속한 조직신학 분야에 기여한 개혁주의 신학자중 몇 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존 머리(John Murray)

머리 교수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글라스고우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던 중,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캐스퍼 하지로부터 조수로 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마침 1929년 프린스톤 신학교의 이사회의 재편성으로 인한 신학적 좌경화에 대항하여 새로 설립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메이천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1930년부터 1966년 은퇴할 때까지 일생 동안 후진들을 양성하고 조직신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학 부문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었다.

머리 교수의 글은 「존 머리 저작전집」(*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전 4권에 담겨있다. 우리 글로 소개된 「존 머레이 선집」은 원래 조직신학의 전 분야를 염두에 두고 차례대로 써 모은 글이 아니고, 머리 교수 사후에 그의 글들을 조직신학의 주제에 따라 모은 글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머리 교수가 조직신학의 주제들을 얼마만큼 포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머리 교수가 조직신학의 여러 주제들을 다룰 때 사용했던 방법론에 대한 것이다. 머리 교수는 그의 스승이었던 게할더스 보스(Geerhardus Vos)로부터 성경신학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리고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은 각각 논리적인 접근법과 역사적인 접근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구별되지만, 두 학과목은 확실히 양립할 수 있으며, 특히 성경신학이 조직신학에 필



수불가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sup>41)</sup> 머리 교수의 조직신학의 여러 주제들에 대한 성경신학적 접근방법은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과장으로 있는 개핀 교수(Richard B. Gaffin, Jr.)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밖에 머리 교수의 공헌 중에서 결정적 성화(Definitive Sanctification)에 대한 부분은 Ordo salutis(구원 순서)의 관점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쾌거이다. 그러나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는 논의를 생략하고 다만 그의 신학적 공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 2 앤소니 후크마(Anthony Hoekema)

후크마는 칼빈대학교와 칼빈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최종학위를 마쳤다(1953년). 그후 칼빈 신학교에서 1955년부터 1978년까지 조직신학 교수로 봉직하고, 수많은 저서와 논문들을 남겼다. 조직신학과 관련하여 그가 남긴 조직신학 삼부작으로 개혁주의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이 있다. 그의 「개혁주의 인간론」은 후크마의 조직신학 접근방법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저서로서, 그 동안의 성경신학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반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론에 있어서 주로 종래의 논의가 인성의 구조적 측면에 머물렀던데 대하여, 구조적 측면과 아울러 기능적 측면을 말하고, “삼중적 관계성 속에 놓여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개혁주의 구원론」에 있어서도, 후크마 교수는, 그의 「개혁주의 인간론」에서 서술한 “피조된 인격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에 힘입어, “우리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역의 기반 위

---

41) 머리 교수의 “조직신학”에 관한 글은, 웨스트민스터 신학저널에 실린 두 편을 참조하라. Vol. 25, 2(May 1963): 133-142; Vol. 26, 1(November 1963): 33-46.

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있는 일하심을 통하여 전적인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난감 꼭두각시로서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받을 구원에 능동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저자 서문중에서). 「개혁주의 종말론」에 있어서도, 종말론이 전통적으로 주로 미래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온 것을, 역으로 현재적인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왕국의 현재적 성취와 구속받은 공동체에 의해 이미 향유되고 있는 축복들"을 다름으로써 그의 종말론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그가 벌랍의 무천년의 입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동시에 성경신학 분야에서 충분히 논의된 "이미와 아직"(Already/Not yet)의 관점을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 3. 리처드 개핀(Richard B. Gaffin, Jr.)

개핀 교수는 현재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과장으로 있다. 원래 신약신학 교수로 재직했으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조직신학 박사과정이 새로 생긴 이래로, 조직신학 과장으로 봉직하고 있다.

그의 대표적 저술로 「부활의 핵심」(*The Centrality of the Resurrection: A Study in Paul's Soteriology*, 1978), 「성령 은사론」으로 알려진 *Perspectives on Pentecost* (원제목: 오순절 전망) 등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저널에 실린 수많은 논문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오순절 사건에 대한 그의 접근방법이다. 종래 전통적인 해석이 오순절 사건을 *Ordo salutis*(구원 순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해 오던 것을, 개핀 교수는 게할더스 보스(Geerhardus Vos)와 화란의 헤르만 리델보스(Herman Ridderbos)의 입장을 수용하여, *Historia salutis*(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높아지신 신분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의 일치를

188 / 신학지평 제8집 · 1998 여름 · 가을

강조하고, 위격의 혼합이나 혼동이 아닌, 기능적, 사역적 일치를 말하고, 성령의 사역이 승귀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어떤 것을 덧붙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다.

개편의 이러한 견해는 우리 나라에서도 수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또한 그 진원지가 총신대학교였다고 하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 교수의 성경의 진리에 대한 구속 역사적 관점의 우선은 역사적 개혁주의 입장이었고, 또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과 일치시킨 것은 바울 신학의 관점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기독교적, 종말론적, 교회론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 4. 데이빗 웰즈(David F. Wells)

웰즈 교수는 현재 미국 보스톤 근교에 있는 고든-콘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담당하는 교수이다. 그는 「미국의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 in America*)의 저자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가 1984년에 출판한 「기독론」(*The Person of Christ: A Biblical and Historical Analysis of the Incarnation*)은 조직신학 분야의 수작으로 주목할 만하다. 웰즈 교수는 그리스도의 품위에 대한 도전을 시도했던 19세기 “예수전”의 저자들의 글뿐만 아니라, 볼트만과 바르트의 이해를 소개하고, 공관복음서의 기독론, 기타 요한 문헌, 서신서들, 바울서신들 안에서의 기독론 등을 차례로 소개하고, 성경신학적인 접근방법 외에 오늘날 신학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현대적 논의들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러한 성경적 토대 외에, 기독론의 역사적, 교리적 발전을 서술하고 있으며, 끝으로 계몽주의 이후의 기독론에 대한 현대적 해석들을 소개하고 오늘을 위한 「기독론」의 정통적 입장을 서술하고

있다. 우리가 웰즈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화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학자들 모두에게 참된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 네 교수들의 글을 소개하였거니와, 이 밖에도 조직신학의 여러 분야에서 좋은 저술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밖에 복음주의 입장에서 저술된 조직신학의 예로 베델 신학교 교수인 밀라드 에릭슨(Millard J. Erickson)의 「조직신학」, 그리고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교수인 웨인 그루덤(Wayne Grudem)의 「조직신학」(1994)은 주목할 만 하다. 또한, 그루덤의 입장에 대한 비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싱클레어 퍼거슨(Sinclair B. Ferguson)의 「성령론」(*The Holy Spirit*, 1996) 등이 있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 결론

지금까지 우리들은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전통 안에 있는 세 가지 두드러진 형태를 살펴 보았다. 이들을 볼트슈토프가 명명한대로 교리주의자, 문화주의자, 경건주의자로 부르든지, 아니면 우리의 논의에서 지적된 대로 고백주의 전통, 문화변혁의 전통, 복음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세 갈래의 전통을 인정하든지 간에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전통에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위의 세 가지 형태는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형태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 형태는 상호 연관 속에 실제로 어는 신학자나 어느 특정 교단을 이들 형태와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어려운 줄을 인정하면서도, 대체로 미국의 개혁주의 교단들이 위의 세 형태의 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조직신학 분야에 공헌한 존 머리, 앤소니 후크마, 리처드 개핀, 데이빗 웰즈 등 네 사람의 신학적 공헌을 간결하게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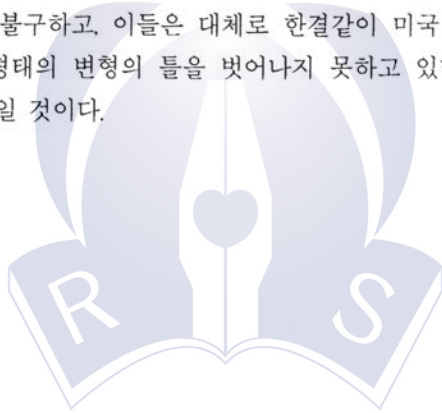




190 / 신학지평 제8집 · 1998 여름 · 가을

들을 열거하려고 하면 훨씬 더 여러 명의 신학자들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적인 토양에서 신정통의 유산을 물려받아 작품 활동을 한 리처드 니이버(H. Richard Niebuhr)와 라인홀드 니이버(Reinhold Niebuhr)를 들 수 있고, 화란의 도예벨트에게서 영향을 받은 라쉬두니(Rousas J. Rushdoony)의 신율주의 운동("Theonomist" movement)과 또한 미국의 남부, 특히 침례교도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의 영향 등 미국의 개혁주의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체로 한결같이 미국 개혁주의 신학 전통의 세 형태의 변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표현일 것이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